



가축질병 피해방지를 위한 가축질병 예찰사업 실시

- 가축위생연구소, 전국대상으로 지속적으로 -

가축위생연구소(소장:이창구)는 각도 가축위생시험소와 공동으로 주요 가축질병의 신속 정확한 발생정보 수집, 질병 조기색출과 예방대책 수립으로 가축질병에 의한 양축농가의 피해방지를 목적으로 가축질병 예찰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농수산부와 농촌진흥청, 각시도축정과, 축협중앙회의 협조로 실시하는 본 사업은 가축위생연구소에 가축질병 예찰 경보를 위한 협의회를 구성 운영하여 가축질병에 대한 주기적인 예찰 및 조기경보 체제를 확립하고 축산농가에 대한 가축질병 예방대책을 제도하기 위함이다.

금년 6월부터 계속적으로 실시하는 본 사업은 전국의 모든 가축을 대상으로 수시에찰, 지역예찰, 전국예찰을 실시하게 된다.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업내용

가. 예찰

- 1) 예찰대상 : 전국일원, 전가축 및 질병
- 2) 예찰방법
 - 수시에찰 : 각시군 축정계 및 예찰담당자(공, 개업수의사 및 축산 특기지도사 등 518명)
 - 지역예찰 : 각도 가축보건소 (22개반)
 - 전국예찰 : 가축위생 연구소, 각도 가축위생 시험소
- 3) 예찰내용
 - 역학적 및 임상병리학적조사
 - 위생관리실태 점검 및 질병발생정보 수집
 - 가검물 채취 및 병성감정

4) 결과조치사항

- 수시 및 지역예찰 결과보고(가축위생연구소)
- 예찰결과 현지확인 및 기술지도(가축위생연구소)
- 결과분석 및 예방대책수립(가축위생연구소)
- 예찰정보 발표(경보, 주의보 및 예보로 구분)(농촌진흥청)
- 방역 및 기술지원(시, 도 및 군)

나. 협의회 운영(가축위생연구소내 설치)

1) 조 직

- 위원장 : 1인(가축위생연구소장)
- 위 원 : 15인(농수산부 1, 농촌진흥청 3, 가축위생연구소 6, 축산시험장 1, 가축위생시험소 3, 축협중앙회 1)
- 간 사 : 3인(농수산부 1, 농촌진흥청 1, 가축위생연구소 1)

2) 운영 및 관장사항

- 정기(년 4회) 또는 수시로 협의회 개최
- 예찰결과 및 병성감정결과 분석
- 정보발표 및 홍보내용 확정
- 예찰사업 실적평가 및 계획 수립

다. 관계기관의 협조 사항

- 1) 각시도청(축정과) : 예찰업무지도 감독및 방역수행
 - 2) 시 군(축정계) : 예찰및 예찰담당자 지도와 방역수행
- #### 라. 전국 임상수의사의 협조 사항
- 1) 지역예찰업무 협조
 - 2) 질병발생정보 통보
 - 3) 방역기술에 관한 의견 통보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개정

— 농수산부, 자체검사원 업무신설 등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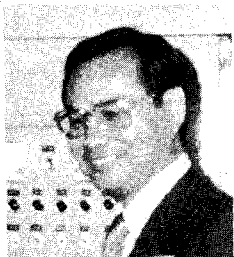
농수산부는 자체검사원의 업무신설 등을 골자로 한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공포했다.

개정령에 신설된 자체검사원의 업무는 원료검사, 시설위생검사, 위생관리검사, 제품검사 (제조과정별 과정검사 및 발취검사), 검사증인 제품의 봉인과 검사결과에 따른 합격표시 및 출고통제, 불합격 수축(獸畜) 및 축산물의 처리, 우유병의 종이마개 및 합격포장용기의 위생적 관리와 수급확인, 기구 및 용기의 규격기준에의 적합여부 확인, 표시사항의 적합여부 확인, 착우유와 착유량의 검사 및 보고, 검사기록 유지 및 검사상황 보고, 제품의 보관지도, 도계검사, 수축 및 축산물의 위생관리업무 등을 규정했다.

한국축산과학연구소

최신컴퓨터 가동식

— 본격적인 연구활동에 돌입 —



(한인규 축산과학연구소장)

축산 고급인력 양성과 객관성 있는 축산업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설립된 국내 유일의 사설 연구기관 한국 축산과학연구소 (소장 한인규 박사, 서울농대)의 PBP 11-17 컴퓨터 가동식이 지난 10월 24일(토) 오후 경기도 이천군 소재 한국 축산과학 연구소에서 업계관련인사 등 내외귀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베풀어졌다.

이날 경과보고에서 한인규소장은 지난해 12월 국내에서 처음으로 사설축산연구기관의 현판식을 거행한 이후 금년 1월 1일 업무를 개시해 그간 최신키 실험기재와 연구원의 확보가 완료되었으며 이번 컴퓨터 가동으로 객관성있는 축산의 경영진단은 물론 광범위한 축산발전에 이바지하게 되었다고, 전제하고 모든 분야의 연구가



△ 국내 유일의 사설 축산연구기관인 한국축산과학연구소는 PBP 11/70 컴퓨터 가동으로 본격적인 연구활동에 돌입했다.

활발히 진행 될 것을 천명했다.

윤도진 제일축산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신진축산국에 비해 뒤져있는 새로운 기술을 습득키 위한 실용화에 진일보하였다고 전하며 지속적인 축산발전에 이바지하는 지름길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당 연구소는 이번 컴퓨터 PBP 11/70 가동으로 사료배합, 재고관리, 원료원가계산, 실험실 프로그램, 양돈모델 개발 뿐 아니라 축산연구를 위한 수리통계적방법연구, 과학적 축산경영시스템 개발, 축산정보 축적 및 검색체제 확립, 외부 유관기관 및 유관업체와의 협조교류 등의 연구계획을 갖고있다.

이날 식장에는 제일축산에서 산학협동을 위해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는 서울농대 수혜 학생들이 참석 한결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제일축산은 이 연구소를 위해 양계, 양돈농장 매출액의 1% (금년 약 6천만원 상당)를 지원하고 있으며 연구소에는 한인규박사가 실장인 영양학연구실외에 경영유통연구실, 육가공연구실, 육중번식연구실, 방역위생연구실 등 5개 연구실과 전산실, 실험실, 도서실 등이 있으며 연구원으로는 국내의 쟁쟁한 연구진들이 관여하고 있다.

미국 브로일러업계시찰단 출국

— 우리나라 브로일러 산업발전에 새로운 장이 열릴 듯 —



(박영인 미국사료
곡물협회 한국지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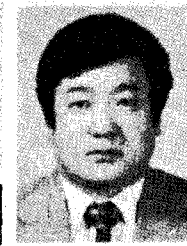
(노영한 본지
편집국장)



(서기상 농수산부
중소가축계장)



(이계욱 천호부회장
부사장)



(이의선 금성사료
사장)



(이재욱 부산
산업사사장)

미국 사료곡물 협회 박영인한국지부장이 이끄는 미국 브로일러 시찰단이 지난 10월 24일 오후 김포공항을 출국했다.

본지 노영한편집국장을 위시해 농수산부 축산과 중소가축계 서기상계장, 천호부회장 이계욱 부사장, 금성사료 이의선사장, 부산산업사 이재욱사장 등으로 팀을 구성한 이번 미국 브로일러 시찰단은 다양한 미국의 브로일러 계열생산 등 관련 업계를 견학 함으로서 선진 양계국으로 발전하는 단계에서 생산, 소비, 유통 등 많은 진통을 겪고있는 우리나라 양계산업에 많은 공헌을 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지난달 24일 출국한 시찰단은 시애틀, 덴버, 링컨, 캔자스시티, 세인트루이스, 루이스빌, 아트란타, 워싱턴D.C 등 미국의 많은 지역을 돌며 세계 굴지의 사료공업 시설과 미국의 유명 종계장, 부회장, 브로일러 농장, 캔터키 후라이드치킨본부, 도계공장 등 유통산업시설, 소비촉진본부 등을 견학하고 미국농무성, 미국사료곡물협회 본부, 세계 브로일러 협회(NBC)등을 방문해 사료곡물의 생산과 수출, 세계 브로일러 산업의 전망에 관한 브리핑을 받게 된다. 시찰단은 귀국하는 길에 일본에 들러 일본의 육계산업에 대하여도 견학을 마치고 오는 11월 15일경 귀국 할 예정이다. 파잉생산, 소비위축, 전근대화된 소비유통 등의 많은 어려움 속에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

리나라 양계산업 특히 브로일러산업 발전에 이번 시찰단의 역할은 매우 큰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미국곡물시장 세미나 개최

— 농 경연, 미국대두협회 공동으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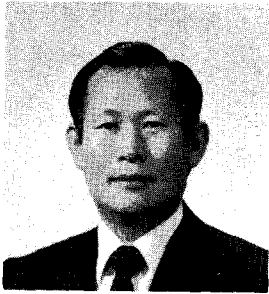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김보현)은 점차 늘어나고 있는 대미 곡물수입량에 대비하여 미국의 곡물시장 및 농산물 무역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지난 10월 6일 농경연 대회의실에서 미국대두협회와 공동으로 「미국곡물시장 및 무역정책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날 세미나에는 국내외 인사 80여명이 참석, 대성황을 이루었는데, 주제별 발표내용과 발표자는 다음과 같다.

- 세계곡물사정과 미국의 농산물 무역정책 : 글렌 샘슨
- 대두의 수급전망 : 로버트 액슨 박사
- 미국의 곡물등급화와 품질관리 : 윌리엄 슈이박사
- 산물시장 : 이경원
- 한미 농산물교역의 회고와 전망 : 김성훈

축협직원, 축산계 출신 우선채용

— 김일로회장, 사명감 인식제고 —



(김 일로 축협회장)

김일로 축협중앙회장은 조합직원에 대한 자질 향상에 주력하는 한편 점진적으로 축산계 학교 출신 직원의 채용폭을 넓혀 명실공히 축산인을 보호하는 조합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김회장은 조합직원의 대부분이 인문계 출신으로 이직율이 높다고 밝히고 이는 사명감 결여에서 비롯한다고 분석, 앞으로 농고 축산계 출신자로 결원을 메워 이들의 채용기회를 넓히는 한편 교육훈련을 통해 진정한 의미의 축산회원 지원과 축산기반 구축에 기여할 수 있는 사명감을 고취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도별 가축품평회 개최

— 전국품평회는 내년에 —

축산물 수요의 급증에 대처한 증산의욕 고취와 우량가축의 선발 활용으로 가축자질 개량도, 양축농가의 애축심 앙양으로 축산진흥 파급효과를 거양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각도에서 주최하고 축협중앙회가 후원하는 '81년도 가축품평회가 9월 26일부터 10월 21일까지 도별로 거행되어 축종별로 최우수, 우수, 장려, 참가상 등이 주어졌다. 한편, 전국품평회는 농수산부 주최, 축협중앙회 후원으로 2년마다 열리게 되어 있어 올해에는 도별경진대회로 끝나고 내년에는 전국대회로 개최될 예정이다.

영농후계자 육성 종합대책 마련 필요

— 농어민 후계자 육성에 관한 세미나 개최 —

농어민 후계자 육성에 관한 「세미나」가 10월 26~27일 이틀동안 서울대농과대학부설 농업개발연구소와 한국 농업교육학회 공동주최로 서울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개최했다.

농어민후계자 육성문제에 대해 학계에서 처음 본격적인 연구를위해 마련된 이날「세미나」는朴振煥농협 대학장의 「산업사회와 농어민후계자 육성」에 관한 기초연설에 이어 시책방향과 개선과제, 장기농촌인력의 수급전망, 학교 및 사회교육을 통한 육성방안등 주제를 갖고 학자 및 관련 전문가들의 열띤 토의가 전개됐다.

高建농수산부장은 「세미나」개회식의 치사를 통해 농어민후계 세대인 새시대 새농민 육성에 대해 학계에서 기울이고 있는 노력을 치하하면서 『제 5차 5개년 계획기간동안 14억원의 기금을 마련하여 2만명의 후계자를 육성해 나가겠다.』고 정부의 농촌후계자 육성방침을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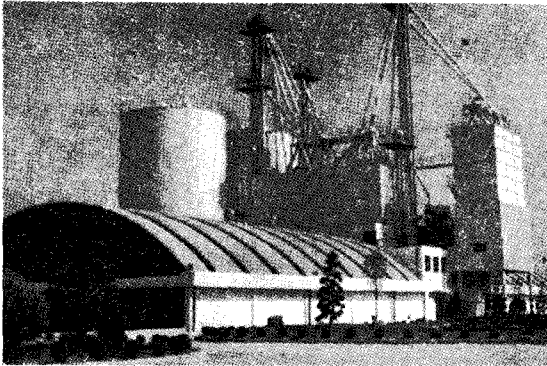
朴振煥학장은 기초연설을 통해 농촌의 문제는 잠재실업자가 많아 어려웠던 것에서 고도산업사회로 바뀔에 따라 인력부족이 주된 과제로 등장했다고 밝히고 영농후계자육성을 위해 종합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朴학장은 『국가발전을 위해 농업과 농촌을 경시 해도 되는가』하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농업교육은 영농후계자들이 필요로하는 정보를 공급하는 방향으로 정부는 영농후계자가 더욱 보람 있는 삶을 누린다는 확신을 심어주고 공공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초대된 토의자는 다음과 같다.

▲金成斗(조선일보논설위원) ▲金聖昊(농수산부 연구관) ▲金性洙(교육개발원책임연구원) ▲金一鐵(서울대사회대교수) ▲金定台(한국일본논설위원) ▲柳泰水(건국대교수) ▲李東奎(한국방송공사기획실장) ▲崔洋夫(농촌경제연구원수석연구원) ▲崔銀淑(서울대교수) ▲許信行(농촌경제연구원수석연구원)

선진사료〈주〉 준공식 성료

— 일산 170톤규모 현대식 공장완공 —



△ 새로 준공된 선진사료 공장

선진사료〈주〉(대표:이원복)는 최신시설의 배합사료 신공장 준공식을 지난 10월10일 이천소재 동공장에서 성대히 개최하였다.

관계, 학계, 일선양축가등 관련업계의 많은 인사들이 참석한 이날 준공식에서 이원복사장은 기념사를 통해 국내 기술진에 의해 모든작업을 안전우선으로 사고없이 특히 에너지의 절약을 위해 이동거리를 단축시켜 작업의 효율화로 공기를 단축시킨바 있다고 전제하고 그간 제일중축농장의 기술과 경험을 토대로 근로자들의 노력으로 국내 축산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것을 약속하였다.

또 양돈협회장 안병규의원은 축사에서 선진사료의 계속적인 발전으로 축산물 수요증가가 날로 늘어나는 축산업계에 많은 공헌을 할것을 당부하고 정부, 양축가, 사료업자의 삼위일체로 축산업 발전에 기여 할것을 다짐했다.

또 농수산부 지설하 축산국장은 김정용사료과장이 대신 발표한 축사를 통해 그간 사료가격의 선의의 경쟁을 유도,문자그대로 민간화 단계로 파급히 전환하는 시점에 와 있다고 전제하고 사료업계의 자율적인 수급안정과 벗짚사료등 국내 사료자원의 개발, 업체마다 생산기술의 향상으

로 상호 경쟁력강화로 새로 출범하는 선진사료도 자랑스런 선진대열에 참여하기를 당부했다.

이어서 사료협회 전용진부회장과 대현농장 박철사장의 축사가 있었다.

79년 제일중축 농장이 모체가 되어 설립된 선진사료〈주〉는 동립산업으로 부터 배합사료 제조허가권을 인수 작년 10월 동 공장을 착공한 바 있으며 동사는 금년 8월에 시험제품 생산과정을 거쳐 준공식을 성대히 갖게 되었다.

동 공장은 8,800평의 공장부지에 3,000톤 저장능력의 Silo 2기와 부원료 제품창고, 원료창고등 부대시설로 일산 170톤 규모의 자동화 생산의 기계시설을 갖추고 있다.

이인혁회장은 이날 준공식에서 공장건립에 수고가 많은 설비회사에 감사패를, 직원들에게 공로패를 각각 아래와 같이 수여했다.



△ 선진사료 준공식

〈감사패〉

기계설비	영진기계공업〈주〉	대표	신광현
설계관리	대화엔지니어링	대표	박용재
전기설비	대유기업〈주〉	대표	김정규
판넬제작설비	삼양전기제작소	대표	유승수
제량제작설비	한국계기계작소	대표	권희문
건축설계	조흥공영〈주〉	상무이사	조두희
	삼호건축설계사무소	대표	장성진

〈공로패〉

최환의 상무, 이동원 관리부장

〈표창장〉

이재식, 서홍규(생산기사)

생명공학발달로 농업분야

획기적인 발전예상

— 유전자 조작으로 영농분야에 큰성과기대 —

최근 생명공학의 발달로 유전자의 조작이 가능하게 되자 앞으로의 영농분야에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이는 인위적으로 유전인자를 빼내어 그 유전인자를 다른 생체에 넣어 새로운 유전자를 개발해 내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말하면 각개의 세포 중 세포핵 속에 생물의 특성, 모양, 수명을 결정 짓고, 자손대대로 같은 성질을 물려주는 유전인자가 있는데 생명공학의 기본이 되는 유전자 조작이란 많은 유전자중 필요한 유전자를 빼어다 다른 생물유전자에 붙여 새로운 유전능력을 지닌 한개의 유용한 생물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외국의 실험실의 예로는 사막이나 염분이 많은 지역에서도 성장이 가능한 품종의 벼, 토끼의 유전자를 쥐에 옮겨 유전시키는 경우, 벼에 뿌리혹테리아를 이식해 질소비료 없이 벼를 키우고, 토마도와 감자를 교배하여 땅속 뿌리에는 감자가 즐기에는 토마토가 주렁주렁 열리는 토마토감자를 개발했고, 나무나 풀로 알콜을 생산해내는 효모의 개발 등이 보고된 바 있다.

녹십자수의약품 신공장 준공

—프랑스 메리유사와 기술제휴도 —

녹십자수의약품<주>(대표 장인상) 신공장 준공식이 지난 10월27일 오전 경기도 기흥면 소재 신공장 뜰에서 관련산업 내외키빈 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개최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이창구 가축 위생연구소 소장의 축사와 지설하 축산국장(김법래 가축위생과장 대독)의 축사와 장인상 녹십자수의약품 사장의 인사로 분위기는 한층 돋보였다. 또한 신축과 더불어 MD백신의 국산화에 성공하여 실험 생산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생산에 돌입할 예정이다. 동사는 3천여평

의 대지에 구공장 384평 외에 금번 신공장 631평을 건축, 사내조경을 위해 잣나무, 향나무 등 200여 그루를 심고, 자가발전실, 폐수처리시설, 공업용수 탱크 및 지하수개발, 사내도로의 포장, 품질관리실 및 신규 기계기구설치, 복지 후생과 시설의 확충 등으로 종업원의 복지후생과 사내 새마을운동 적극추진은 물론 공장종업원과 기술진 보강으로 양측가들에게 양질의 우수한 의약품을 공급할 예정이다.

동사는 이번 신공장 준공으로 국내 내수는 물론 수출산업에 역점을 두어 국제적인 동물약품 생산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동사는 작년 돈콜레라 예방약, 주백리진단약 등 2만4천4백불의 수출실적에 힘입어 올해도 2만5천 불의 수출실적을 올린바 있다.



△우수한 의약품 공급을 위해 녹십자 수의약품 <주>는 631평의 신공장을 신축, 준공식을 가졌다.

한편 이를 위해 호주 웹스터(Webster)사와 기술제휴 외에 EDS백신 개발을 위해 프랑스 메리유(Merieux)사와 기술제휴 계약을 체결 농수산부의 인가를 얻어 본격적인 생산을 준비하고 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가축위생연구소 이창구소장과 농수산부 가축위생과 김법래과장, 한양건설<주> 김인환현장소장에게 감사공로패를 전달한바 있다.

한국화이자 자매결연

— 흥벌리 새마을청소년회와 —

한국화이자(주)(대표 김중배)는 지난 10월 29일 새마을 청소년회의 육성발전을 위해 경기도 화성군 서신면 흥벌리 새마을 청소년회와 자매결연을 맺었다. 이날 화이자 측에서는 농축실장 김종상씨 외에 2명이 참석하여 자매결연패와 지역발전을 위한 찬조금을 회사하였다.

한국화이자(주)는 기업이윤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기업이념에 따라 축산이 낙후된 지역을 축산마을로 발전시키는데 적극적인 협조와 후원을 해 나갈 계획이다.



△ 한국화이자사는 지역사회 육성과 농촌축산의 개발을 위해 화성군 흥벌리 새마을회와 자매결연을 맺었다.

계분이용사료 개발

— KAIST에서 연구 중 —

KAIST(한국과학기술원) 동물사료연구실(실장 김창원박사)은 최근 대추야자잎과 계분을 이용한 사료를 개발 중에 있다.

사우더로부터 1백만달러의 용역비를 받아 4년에 걸쳐 연구하게 될 이 사료는 개발되면 국내에서도 계분을 이용한 최초의 사료로서 이용가치가 높게 된다.

수의학술발표회 및 세미나 성료

— 대한수의사회, 10월 23, 24 양일간 —

대한수의사회(회장 윤패병)는 축협중앙회와 대한수의학회, 한국수의공중보건학회 및 재미한인수의학회의 협찬을 얻어 지난 10월 23, 24 양일간에 걸쳐 전경련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수의학술발표회 및 세미나를 개최하여 연 600여명의 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마쳤다. 가축질병 전반에 걸친 문제가 다루어져 상당히 알찬 내용을 보였던 이번 행사에는 농수산부에서 강인희 차관과 시설축산국장을 비롯한 업계중진이 다수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 주었다.

이번의 발표내용 중 양계분야에 관련된 것으로는 박근식 가축위생연구소 제역과장의 '한국에 있어서 뉴캐슬병의 발생과 방역에 대한고찰'과 이영욱 박사의 '감보로병 및 타질병과의 관련성' 등이 있다. 기타 각 가축의 질병에 대한 연구가 발표되었으며 우리나라 수의학의 개황과 고품양이 독소에 관한 연구 등 내용이 발표되었다.



업계단신



○ 제 3회 전국농산물품질평회 개최 : 전국농업기술자협회(총재: 류달영)가 주최하는 제 3회 전국 우수 농산물품질평회가 11월 3일부터 9일까지 서울 강남구 소재 (주)한양유통에서 개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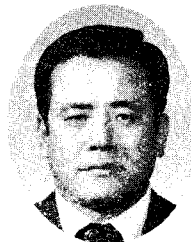
○일본의 요드달걀 :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고혈압, 동맥경화, 당뇨 등 성인병예방에 호평을 받고 있는 요드달걀이 절찬리에 판매되고 있다. 지난 76년 8월에 처음 시중에 선보인 이 요드달걀은 지난 9월중에도 약 420만개 정도의 판매실적을 보였는데 가격은 6개들이 포장단위로 300원(한화 약900원 상당) 정도로 일반 달걀의 약 2배 정도가 된다. 이 요드계란은 신진대사기능촉진제를 함유하고 있으며 일반양계장에서 사료에 해저분말, 옥수수, 목초등 자가배합사료를 급여하여 생산해 내고 있다.

○미국서해안 곡물수송에 관한 세미나 개최 : 미국 사료곡물협회는 한국사료곡물협회, UNION PACIFIC, BURLINGTON NORTHERN RAILROAD사와 공동으로 지난 10월 22일 오후 미국 농업 무역관에서 미국 서해안 곡물수송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날 세미나는 미국 철도회사의 현황과 서해안 곡물수송에 대한 슬라이드 상영과 함께 대한민국 곡물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소개로 사료가격 자율화 이후 사료곡물 도입의 자유화에 많은 관심을 갖고있는 사업계 뿐 아니라 국내 곡물업자들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한국화이자<주>(대표 김중배) : 제 7차 전국판매점 세미나를 전국판매업소 판매사원을 대상으로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영동반도 유스호스텔에서 개최하여 공장견학, VTR을 이용한 판매기법과 신제품소개, 최근 문제되고 있는 양계·양돈 질병세미나를 가졌다.

○김길원 (한국바이엘화학<주>대표) : 선진약품업계시찰 및 신제품개발을 위한 업무차 지난 10월 3일부터 6일간 일본 토오쿄오와 오오사카를 방문.



(김길원)



(윤쾌병)

○윤쾌병 (한국야구르트유업 대표, 대한수의사회장) : 일본출장을 마치고 이석환 이사와 함께 10월 15일 귀국

○신장가축약품 (대표 성권경) : 사세확장에 따라 전화증설
기존 : 신장 2232 증설 : 신장 2026

○신장동물병원 (원장 홍승남) : 10월 15일 기존 병원건물에 200여평을 증축준공하고 최신시설을 갖추어 본격적인 진료에 돌입

○단미사료협회 (회장 강대준) : 10월 7일 제20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신규가입회원 승인과 82년 농안기금 운용협회 및 어분수급 안정화문제 등을 협의

○대동축산상사 (대표 최상남) : 사세확장으로 가축병원 겸업 개설
주소 : 동대문구 용두 1동 36-1
전화 : 965-4444

○영남가축약품 (대표 손형목) : 이전 부산시 동래구 명균 2동 676-93 (2동 사무소 옆)에 개설 전화 : 52-2277

● 축산 뉴우스

○삼양약화학<주>(대표 민경우) : 학술부 차장에 김재원(전 계우회연합회)씨를 기용

○퓨리나 코리아<주> : 11월 1일부로 영업부에 박찬호(전 천호부화장 과장)씨를 기용

○한풍산업<주>(대표 최죽송) : 사세확장에 따른 업무능률 향상을 위해 영업부에 김창진(경상대졸, 수의사)씨를 기용

○한국농업과학협회(회장 표현구) : 10월 17일 전국에서 농학자 6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농업의 미래」란 주제로 심포지움을 가졌다.

○전국낙농기술자동우회 : 10월 24일, 25일 양일간 경기도 평택에서 기술보급의 문호를 농가에 보급키 위한 세미나 개최

○<주> 롯데축산 : 기업이미지 부각을 위해 <주> 롯데햄·롯데우유로 상호변경

○이용만(농촌경제연구원 농업구조연구실 책임연구원) : 10월 5일부터 9일까지 일본 동경에서 열린 ASPAC/FFTC주최 농촌공업화와 농의취업에 관한 국제세미나에 참석

○천호통산<주>(대표 이계조) : 지난 10월 10일 인천시 항동에 대규모 최신 시설의 신공장 착공

○이건일(전 삼일원종농원 상무) : 의정부에 봉림부화장을 개설

사무실 :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 1동 18-7 (후생빌딩301호) ☎(2)3211, 3369

야간(서울) 423-0245

부화장 : 경기도 양주군 주내면 황사리 68-6

○이병우(천성농장 대표) : 지난 9월 30일 부산 진흥사로(대표 배태현)전무이사에 취임



(이 병 우)



(박 만 후)

○과학축산시스템(대표 박만후)사무실이 전 : 축산관계 및 축산가공에 사용되는 기계 수입, 판매 및 제작에 전념키 위해 새로운 사무실을 개설하여 이전, 동사는 이밖에도 우수한 중돈수입과 개량 및 판매활동을 하고 있다.

주소 : 서울시 성동구 능동 240-10(우성빌딩 203호) ☎(445) 0212

○아시아철공소(대표 박일규) : 현대식 사료급이를 위한 사료저장용 탱크 휘드·빈 제작개시, 설치비는 6톤용 1기당 50여만원
연락처 : ☎972-9990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김보현) : 우수한 연구인력 확보를 위해 7명의 연구원 선발. 명단은 아래와 같다.

김은순(서울대 농대), 김종덕(서울대 대학원 사회학 전공), 이수홍(전국대 축산대), 전창곤(경상대 농대), 조덕래(고려대 정경대), 최정섭(서울대 농대), 최지현(서울대 농대)

목 장 매 각

■ 주 소

김포군 고천면 신곡리 37 (김포공항에서 아스팔트길 4km거리)

■ 토 지

대지 : 924 평 밭 : 3,383 평
논 : 1,330 평 계 : 5,642 평

■ 시 설

가옥 3동, 축사 1동(10평)

■ 연 락 처

전화 (723)1114 광형군
(720)2915

※ 500m 이내에 타인의 재산 전무함